

각각의 브라민 별은 살아있는 별자리의 장식이다.

오늘 지식의 태양과 지식의 달이 그들의 별자리(성좌)를 보려고 왔다. 지식의 태양과 지식의 달은 함께, 별인 너희들 가운데로 왔다. 물질세계에서 해, 달, 별들은 정상적으로는 동시에 보일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별인 너희들은 태양과 달과 함께 있다. 이것은 별들의 영적인 독특한 집회다. 오늘 밥다다는 다양한 너희 별들을 보고 있다. 별인 너희들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심지어 아주 작은 별들도 이 별자리를 아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다. 큰 별들은 어쨌든 크지만, 이 별자는 작은 별인 너희들의 광채로 인해 한층 더 아름다워진다. 별인 너희들 각자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면서 밥다다는 매우 기쁘다. 심지어 제일 작은 너희 별들마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들은 각자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오늘 밥다다는 너희들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있다. 부모가 그들의 한정된 가족 안에서 각 자녀의 미덕들, 의무들, 행동을 상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태양과 지식의 달인 무한한 부모도 이 무한한 가족 내의 모든 별들의 특별함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오늘 지식의 달, 아버지 브라마는 특히 세계의 구석구석에 있는 반짝이는 그의 모든 별들을 보며 행복해서 춤추고 있었다. 그는 어찌나 행복한지 지식의 태양, 아버지에게 각각의 별들의 필요성과 특별함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묻지도 마라! 너희들은 지각의 요가의 카메라로 그때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느냐? 사카르 형태를 경험해본 자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안다. 바바의 얼굴이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희는 뭘 볼 수 있느냐? 너희들의 눈에서 진주가 반짝일 정도로 너희들 모두 무척 행복하다. 보석 상인이 각 보석의 중요성을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달은 오늘 각 보석을 칭송하고 있었다. 너희들 모두에 대한 칭송이 무엇이었는지 너희 모두 생각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을 너희 모두 알고 있느냐?

너희들 각자의 특별함과 위대함에는 아주 분명한 측면이 있다. 너희가 마하라티든, 보병의 일부든, 작은 별이든, 큰 별이든, 너희 각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게 속하는 특성을 가졌다. 위대한 권위자들은 그들이 경전, 종교, 과학, 정치 어느 것의 권위자든, 없어질 수 있는 그 거창한 칭호들에 대한 권위를 가진 그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반면, 너희들은 모두 알아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단순히 신을 불러내기만 한다. 경전들에 대해 논쟁하는 자들은 여전히 추측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발명에 몰두해 있어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듣거나 이해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에 완전히 빠져있다. 정치의 권위자들은 지위를 붙들고 있으니 모두들 바쁘다. 그들은 시간이 전혀 없다. 자기들의 종교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 종교지도자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각자의 종교를 돌보느라 분주하다. 그들 모두 각자의 일을 보살피느라 무척 바쁘다. 그러나 너희들은 신을 불러내지 않고, 너희 모두가 신과의 만남을 축하할 것이다. 너희 각자는 이 특별함과 위대함을 가졌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특별함이 있어?” 라든가 “나에겐 미덕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저는 미덕이 하나도 없습니다.”란 신봉자들의 말이다. 미덕들의 대양, 아버지의 자녀라 함은 덕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이런저런 특성과 미덕을 가졌고, 아버지는 그 특별함을 본다. 왕가의 구성원은 항상 가득해서 누구든 결코 거지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안다. 마찬가지로 아무 미덕도 특별함도 없는 자녀라면 미덕의 대양,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즉 너희 모두 덕성 있고 위대하며 특별한 영혼들이다. 별인 너희들은 살아있는 별자리의 장식이다. 이제 너희 모두가 누구인지 이해하느냐?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이기 때문에 너희는 약하지 않고 강하다. 너희는 변함없이 영적인 그 도취감을 느끼느냐? 영성에는 교만이 없다. 교만은 없고, 대신 자아존중이 있다. 자아존중이란 영혼인 자아에 대한 존중심이라는 뜻이다. 자아존중은 교만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자아존중의 자리에 한결같이 앉아있어라. 너희의 교만의 자리를 떠나라. 교만의 자리는 아주 아름답게 장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척 편하고 매력적이게 보이지만, 실은 가시방석이다. 교만의 이 자리는 “네가 먹는 것에 대해 회개하고, 네가 먹지 않는 것에 대해 회개하라”는 속담과 똑같다. 너희들은 서로를 보면서 너희도 그것을 맛봐야겠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아무개도 그걸 경험했으니 나라고 왜 똑같이 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위에 앉을 때 비록 너희가 그 가시에 찔릴지언정 그것에서 손을 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를 속일 수 있을 만큼 겉보기에 아름다운 교만의 자리에는 앉으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마라. 자아존중의 자리에 앉았을 때 너희는 한결같이 행복하고 항상 고결하며 모든 성취의 화신임을 경험할 것이다. 아버지를 알고 그와의 만남을 축하하는 너희들의 특별함을 의식 속에 간직함으로써 너희는 끊임없이 명랑하게 지낼 것이다. 너희는 달이 별들

을 보고 행복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별인 너희들은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 앗챠.

변함없이 자아존중의 자리에 안정해 있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그들 자신을 특별한 영혼이라 여기며 다른 영혼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자기의 특성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지식의 태양과 지식의 달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충실하고 순종적이며 가치 있는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비약트 밥다다가 다디지에게 말씀하심. 너는 모든 이의 특별함을 보았지? 여행에서 뭘 보았느냐? 너는 젊은이들과 나이든 이들의 특별함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들의 특별함에 대해서 듣거나 그 특별함이 이야기될 때 모든 이가 참으로 행복해한다. 모든 이가 행복하게 듣고 있었지? (이 말씀 전에 다디지는 암발라 (편자브 주)와 피로자바드 (U.P. 주)에서 열린 멜라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다.) 만일 모든 이가 오직 특별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특별한 과제를 위해 행복의 북소리가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기가, 즉 음악이 브라민 가족 전체에 어디서든 연주될 것이다. 여행은 짧았지만 좋았다. 너는 행복의 광산을 가져가서 모든 이를 행복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돌아왔다. 두 장소의 열성과 열의는 서로 상대방보다 더 컸다. 아버지도 역시 모든 자녀의 용기와 열의를 보면서 미덕들에 대한 칭송의 꽃으로 세례를 퍼붓는다. 앗챠.

그룹들을 만나심.

너희들은 각자 너희의 높은 행운을 아느냐? 너희는 고결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너희의 행운을 높게 만들고 있다. 너희의 행위가 고결한 정도만큼 너희들의 행운의 선도 그에 따라 길고 뚜렷할 것이다. 너희의 손을 보면서 거기서 너희의 운을 알아내려 할 때 손금 보는 이들이 뭘 보느냐? 그들은 너희의 행운의 선이 긴지 여부와 그 선이 여기저기 끊겨있는지 여부를 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만일 고결한 행위를 끊임없이 행한다면 너희들의 행운의 선은 아주 길고 뚜렷하고 언제나 고귀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때로는 고귀한 행위를 행하지만 다른 때는 평범한 행위를 행한다면 그럴 경우엔 너희의 선이 여기저기 끊어져서 영구적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때로는 멈추게 되고 다른 때는 전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고귀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아버지는 너희의 행운을 높게 만드는 길을, 즉 고결한 행위들을 너희에게 알려줘 왔다. 너희가 복을 만들기는 참 쉽다! 고귀한 행위를 행해서 수백만 곱절로 복있게 되는 행운을 성취해라. 고귀한 행위를 행하는 토대는 고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가장 고귀한 아버지를 의식하며 지내는 것이 곧 고결한 행위를 행한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이 정도로 복이 있느냐? 너희들 모두 행운아들이지만 너희의 등수는 너희가 고결한지 평범한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한즉 너희 각자 행운의 선을 영원하게 그렸느냐, 아니면 단기간 동안만 그렸을 따름이냐? 너희들의 선은 길겠지? 그것은 영구적이지? 여기저기 끊어지지 않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너희들은 참으로 운이 좋다! 너희들은 지금 운이 좋고 미래의 여러 생에도 역시 행운아들이다.

2) 너희들 모두 너희 자신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협조하는 영혼이라 여기면서 이 드라마에서 전진하고 있느냐? 우리 영혼들은 참으로 높은 행운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이 직업을 항상 기억하느냐? 전문가인 영혼과 더불어 일하는 이는 고귀하다고 간주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역할과 과제는 직접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니 너희들의 배역은 그토록 고결하다. 너희는 이것을 인식하느냐? 전에는 너희가 단지 몇 초 동안만 일별하게 해달라고 소리쳐 불렀었다. 너희는 이 소망을 갖고 있었지? 너희는 이것에 대한 권리를 소망하거나 이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인식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그것을 항상 갖고 있느냐, 이따금씩만 가지느냐? 너희가 이 인식을 때때로만 가진다면 너희의 성취는 무엇이 되겠느냐? 너희는 겨우 때로만 왕국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때로는 왕이 되고 때로는 백성이 될 것이다. 변함없이 협조적인 자들은 항상 왕이다. 너희가 지닌 권리는 불멸하며 영원하다. 아버지가 보장한 기간인, 반 사이클 동안 너희는 그 기간 내에서는 영구적으로 왕국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라자 요기가 아니라면 왕국을 가질 수 없다. 뭔가를 내내 가질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잠시 동안만 받아들이느냐? 앗챠.

3) 합류시대는 새로운 시대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각 순간 순간과 그들의 활동 하나하나는 새롭다, 즉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말하고 움직여 돌아다니는 방식이 다 새롭다, 다시 말해 알로킥하다. 새로운 관심, 새로운 상황, 모든 것이 새롭다. 너희는 의식 속에 새로움을 갖고 있다. 너희의 의식에 따라 너희의 단계도 그러하다. 너희들의 대화가 새롭고, 너희들이 만나는 방식이 새롭고, 모든 것이 다 새롭다. 너희가 남들을 볼 때 그것은 영혼이 영혼을 보는 것이다. 전에는 너희가 몸을 보았던 반면 지금은 영혼을 본다. 전에는 너희가 남들과 접촉하게 될 때 악덕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했다. 이제 너희는 형제의 눈길로 남들과 연결을 가진다.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의 동반자들이 되었다. 전에는 너희에게 로킥한 동료들이 있었다. 브라민들의 언어는 새롭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너희가 단지 신이 왔다는 말만 해줘도 그들은 놀라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라 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새로우니, 매 1초1초마다 너희의 내면에 새로움이 있게 해라. 1초 전에 너희가 가졌던 단계가 그 다음 1초에는 같지 않도록, 뭔가 더 높아지게 해라. 이를 두고 빠른 노력이라 한다. 때로는 상승단계에 있고 때로는 멈추는 단계에 있는 자들은 1등의 노력가라고 불릴 수 없다. 1등의 노력가를 나타내는 표시는 그들이 매 1초1초, 매 생각 하나하나에 상승단계를 경험한다는 점이다. 만일 그것이 지금 80%라면, 1초 후에는 80%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말고, 81%이게 해라. 상승단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뜻이다. 브라민 생의 과제는 전진하면서 남들도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의 상승단계에는 모든 이를 위한 유익이 들어있다. 너희 모두 이 책임이 있다. 앗챠.

축 복: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영광을 가지고 누수를 통한 낭비를 끝냄으로써 강력해져라.

너희가 합류시대에 밥다다에게서 받아온 보물들을 모두 낭비하기를 멈춰라, 그러면 너희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영광을 가질 것이다. 뭔가가 낭비되지 않게 막는 것이 곧 강력해진다는 뜻이다. 힘이 있는 곳에는 낭비가 있을 수 없다. 누수에 의한 낭비가 있다면 그럴 경우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강력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너희의 누수를 체크하고 그걸 끝내라, 그러면 너희가 강력해지고 낭비가 없을 것이다.

슬로건: 너희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완전히 순수를 지키는 것이 요기이며 기야니 영혼의 도전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